제9강 김주옥 「살모사」

(1교시)

1. 작가 연보
1977년 경남 진주 출생
1999년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
2001년 첫 단편소설「봄」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2001년 4월 현대문학에「살모사」발표

2. 경향 및 특징
젊은 작가 김주옥은 조선일보 신춘문예「봄」으로 등단했다. 여성적인 문체와 시적인 표현, 묘사력이 특히 돋보인다. 일상에서 소설적 문제들을 끄집어낼 줄 아는 관찰력, 평범한 문제를 독특한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눈에 띈다.

3. 줄거리
삼대에 걸친 모녀의 비극과 갈등의 해소 과정을 뱀에 얽힌 사건을 통해서 풀어씀

4. 주제
모성의 숙명성, 그를 통한 모녀간의 화해

5.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시점상의 문제
이 작품은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겪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다룬 소설이다. 모녀의 갈등과 주인공의 경험을 그린 이야기이므로, 만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쓴다면 내면갈등과 주인공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6. 문예사조적 경향
자연주의적 리얼리즘

7. 문체의 특징
여러 시각에서 관찰한 상징적 이미지가 문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시적인 표현들이 문장을 맛깔스럽게 한다.

8. 갈등양상
내면갈등, 심리적 갈등.
거역할 수 없는 운명과 맞닥뜨린 인간의 심리적인 갈등과 모녀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을 주로 표현.

9. 구성상의 특징

<현재 → 과거 → 현재 → 과거 → 현재>

현재의 문제에서 과거의 경험적 사건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주인공의 심리상태가 묘사된다. 배경은 어릴 적 살던 고향집과 현재의 집,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주인공의 심리를 긴장감 있게 보여주는 플롯이다.

10. 묘사력

<시각적 묘사>

군살이 박히고 보기 싫게 부러진 손톱은 흡사 나병환자의 그것 같고, 축 늘어진 머리카락에 항상 붙어 있는 지푸라기들로 지저분한 엄마는 독기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p.61)

그들의 방아놀이는 싱싱하고도 힘차서 둘이 뿜어대는 교성은 뒷마당 대나무 가지에 걸려 요동쳤다. (p.62)

아버지를 둘둘 말았던 가마니 위로 들러붙던 파리 떼와 촘촘히 들어와 박히던 죽음의 냄새, 심장의 힘에 밀려 뿜어대던 두려움을 고스란히 언어도 되살려야 했던 시간을 줄곧 도려내고 싶었다. (p.64)

아이의 입술은 창백했고, 오전 나절에 휘몰아친 몹쓸 시간의 흔적이 걸려 있다. (p.71)

<심리 묘사>

나는 고독했다. 여덟 살이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깊고 긴 감정이어서 나는 껍질만 겨우 남은 박제 동물처럼 교실에 걸려 있었다. (p.60)

나는 그 순간 재빠르게 원을 그리는 팽이 위에 실린 가족의 얼개, 그 성긴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보았다. (p.62)

밤바람에 대나무들이 몸통을 비벼대며 장송곡을 울리자 나는 혼자라는 생각과 함께 홀연 겁이 몰려왔다. (p.63)

텅 비어 버린 그녀의 몸에서 슬픈 피리 소리가 새어 나왔다. (p.72)

11. 잘된 대화술

<엄마와 아버지의 대화>

“저것이 뱀끼가 들었는 갑다.”

“그래 봐야 다 니 욕하는기다. 아가 지 어미 닮제 누구 닮겄노.” (p.61)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모녀에게 닥칠 거역할 수 없는 운명, 대를 잇는 비극을 암시하는 대화로 볼 수 있음

<주인공과 아버지의 대화>
“살모사는 와 이름이 살모사고?”
상자 앞에 쪼르르 달려가 푯말에 적힌 글들을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때 망태기를 개키던 아버지는 돌아보며 웃었다.
“우리 단실이 인제 글자도 읽을 줄 아는 거 보이께네 다 컸대이. 엄마가 단실이 낳을 때 고생을 억수로 한거 맨치로 뱀도 새끼를 낳으모 힘이 들거던.”
“그래서?”
“그래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 있는다 아이가. 그라모 옆으로 새끼들이 모이든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어미를 물어 죽이는 갑다 싶어서 살모사라 안 불렀나. 그것도 다 근거 없는 옛말이재. 모르긴 몰라도 어미가 지를 낳고 아픈 게 걱정돼서 안 그라겄나.” (p.74)

→ 주인공과 아버지의 대화로 인해 살모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이 소설의 주제이기도 한 모성애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대화로 하여 갈등이 해결되는 구실을 하고 있다.

12. 상징성
- 살모사 : 소설 속의 살모사는 모녀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갈등과 화해의 연결고리이다.

- 깨죽 : 주인공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엄마는 깨죽을 쑤어줬고 주인공 또한 유산한 은주에게 깨죽을 쑤어주는 것으로 보아 깨죽은 살려고 하는 의지의 표출이자 상처치유와 극복의 미의 매개물로 볼 수 있다.

13. 에피소드
이 작품에서 에피소드는 앞으로의 벌어질 사건과 갈등의 복선, 암시의 구실을 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운명에 필연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 어릴 적 주인공의 왕따 경험과 은주의 왕따
→ 현실로부터의 소외를 표현함으로써 모녀의 운명에 필연성을 더해준다.

-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아버지가 알려주는 일
→ 엄마가 아빠를 살해할 때 쓰인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주며, 이는 엄마의 완전 범죄를 암시하기도 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